

세계관 운동, 길을 묻다

SPEAKER : 양희승 (청어람ARMC 대표), 이강일 (IVF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



지난 11월, 세계관동역회에서는 임원을 대상으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타 기관의 두 단체장을 통해 이 시대를 면면히 살피고, 지금까지의 세계관동역회의 세계관 운동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사역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지난 호 IVF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이강일 소장의 “역사적으로 본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의 전개”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청어람ARMC 양희승 대표의 “기독교생태계 지형의 변화와 세계관 운동의 현재”를 담았다.

[1월호] 이강일 _ 역사적으로 본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의 전개와 추이

[2월호] 양희승 _ 기독교생태계 지형의 변화와 세계관 운동의 현재

[3월호] 대담, 묻고 답하다

양희승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세계관동역회)에 대해 국외자의 입장이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인상비평 수준에 그칠 수도 있

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 경험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 기독교세계관운동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저의 문제 의식을 나눔으로 세계관동역회의 안팎의 방향을 설정하는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계관동역회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초반부터 세계관 운동을 추구해 왔던 주요 단체들이 결합된 조직으로 명실상부하게 규모나 전통에 있어서 충분

히 대표성을 가질 만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안팎에서 서로 다른 평가나 제안, 전망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계관 운동의 역사와 관련하여 시기 구분을 한다면, 70년대부터 프란시스 쉐퍼의 책이나 칼빈주의를 통해 이미 세계관을 접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80년대 들어 IVF(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본격적인 세계관 관련 서적이 출판되면서 개별 연구모임과 선교단체의 수준을 넘는 대중적 확산이 8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 졌다 봅니다. 당시 대학생들이 기독교세계관을 필수교양처럼 접하다가 90년대 중반쯤 이 흐름이 급속히 내려 앉습니다. 90년대 초부터 등장한 경배와 찬양 운동이나 기도운동, 문화운동, 세계선교 운동 등이 훨씬 강하게 대중적 신앙운동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토론과 강의를 주요소로 한 학구적인 방식이 주저앉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 내부 평가와 자성이 일어나 2000년대 초반 일명 '기독교세계관 논쟁(약칭 기세논쟁)'으로 5년 정도의 소강상태를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세계관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세논쟁은 <복음과 상황> 지면에서 약 6개월간 지속되었고, 2003~4년에는 당시 기학연(기독교학문연구회, 세계관동역회 전신)과 <복음과 상황>이 컨퍼런스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이강일 소장의 분석(월드뷰 17년 1월호 참고)이 그때 제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기독교세계관 논의가 잠잠하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집중 출판되었는데 생각만큼 확산되지는 않았습니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도 세대적인 구조가 이미 어

긋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90년대 중반 학번 이후는 '세계관' 논의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은 사실상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세계관 담론 자체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2007년의 집중적 출판에도 호응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80~90년대 중반까지 대학을 거친 30~50대 중년층에게는 세계관 논의가 당연시 되었는데, 이후 90년대 중반 이후 학번들에게는 10년이 넘는 공백기가 있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반 동안 한동대에서 세계관 강의를 다녔습니다. 제일 당혹스러웠던 것이 당연히 알거라 생각하고 인용한 대부분의 책들을 학생들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기 전에는 보통 교수님 3명이 팀티칭으로 가르쳤는데 사용한 책들이 대개 80년대 중반에 소개되었던 것에서 진전된 바 없었습니다. 대학시절에 읽은 독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다시 반복하는 상황이었죠. 제가 100명 정도 모인 외부 특강에서 '세계관'이란 용어나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들어봤다는 학생이 5명 안팎, 책을 읽은 학생은 1~2명에 그칩니다. 그러니 지금 청년세대는 세계관 논의에 거의 백지상태라 생각하고 강의해야 합니다. 세계관 논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 있는 분들은 중장년층을 넘어서는 세대에 속하는 겁니다.

저는 이강일 소장의 세계관 세대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제 구분으로는 1세대는 손봉호 교수님, 그리고 세계관동역회 임원이 2세대, 저와 이강일 소장이 3세대쯤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대가 4세대인데, 세계관운동에 대한 자의식이 거의 없는 세대라 봅니다. 세계관이라는



우리의
사회적상상은
무엇인가?



개념이 파격적으로 재론되거나 재규정 되지 않는 한, 젊은 세대를 논의의 테이블로 초청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생각합니다.

청어람아카데미를 2005년부터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세계관 운동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2000년대 초반에 기세논쟁에 이러저러한 제안을 했던 입장이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기독지성 운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어람에서는 강좌기획을 주로 합니다. 인문학, 정치·사회, 문화·예술, 실용적 강좌 및 신학까지 다양한 강좌를 기획하는데, 넓게 보면 기독교세계관 운동이라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세계관이란 용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용자나 공급자 측에서 딱히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카데미 운동을 하

면서 겪었던 아쉬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봤습니다만, 저는 세계관 운동이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을 굳이 '세계관'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문제의식 1.

비판적 지성을 고양시키고, 새로운 학술적 기여가 기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지성 학술운동이라는 것이 비판적 지성을 고양시키고 새로운 학술적 개혁이 기민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장인가라는 자문을 해 봐야겠습니다. 세계관과 관련해서 세계관 논의도 이론적인 논의에서 진보가 있는데 그걸 따라잡고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쉼퍼나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

장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보았던 것은 세계관 운동의 대표 저자 중 하나인 제임스 사이어가 칼빈대의 제임스 스미스의 논의를 끌어들이며 세계관이라는 개념 자체를 포기해도 되겠다는 얘기까지 한 것입니다. 스미스는 찰스 테일러의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이라는 개념을 차용하는데, 제임스 사이어도 ‘세계관’ 대신 ‘사회적 상상’을 쓰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을 쓴 제임스 사이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점이 흥미롭죠. 특히 『코끼리 이름 짓기』의 개정판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아직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논의를 따라가는 것 외에 우리 안에 자생적인 논의 지형이 잘 형성되거나 발전되고 있는가, 지난 2002년 기세논쟁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기세논쟁 이후 내러티브를 중요하게 보자든지, 개혁주의 중심성이 약화되고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기독교세계관 논의 초창기에 창조과학이 대중적으로 큰 비중을 가졌었는데, 흥미롭게도 세계관동역회는 최근의 창조과학 비판 논란에서 비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굉장히 큰 이슈인데 세계관동역회가 이에 어떤 입장이며,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의식 2.

젊은 세대의 유입과 발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마도 이 부분도 가장 비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 세대의 유입, 발굴, 다음세대의 세계관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말이죠. 정해진 세계관 강사, 새롭게

추가되거나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옛날 버전의 교육이 많습니다. 게다가 좀더 대중적인 차원에서 세계관 강의나 교육이 이뤄지는 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한동대는 별도의 강좌가 있지만 다른 기독교대학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세계관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종종 초청받아 가면 자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여전히 외부 강사에 의존합니다. 이는 세계관을 가르칠 후속세대와 관련해서 재생산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또한 이를 풀어나갈 연구와 교육의 장은 마련되어 있는가, 매거진이나 논문 등이 열려 있고, 저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과 학문> 같은 학술지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성은 떨어지고 대신 현상 기술적이거나, 사회적 긴밀함이 없는 주제로 주로 구성되고 있다는 분석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도 학술연구재단 등재지라는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학술논문이라는 것이 이해 당사자 외에 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것만으로 기독교세계관운동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요소가 젊은 세대의 질문보다는 기존 체계의 규율에 더 친화적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면서 꾸준히 젊은 세대를 유입하려는 방안이나 노력을 확보해야 한다 봅니다. 그냥 편안한 채로 남아 있다면 굉장히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연구자나 강사들의 발 디딜 틈이 확보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세계관동역회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자, 교수,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기에 이 분야에 입문하였지만 불안한 상태에 있는 후배 연구자들을 견인해주시고 안정적으로 유입하도록 만드는 구조는 분명히 고민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의식 3.

실천적 기여를 해내고 있는가?

이 지점에서는 제가 악역을 맡아야 하겠습니다. 세계관 논의는 다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떤 한 관점의 논의가 과도하게 영향력을 끼치면 다른 후속적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 기업이 세금이나 납세에 있어 정직한 기업일 수 있으나, 자본이나 노동, 직업윤리 등이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는 상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생략한 채 너무 쉽게 자본주의 경영자 입장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한계가 있지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열심히 노동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노동 없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노동윤리나 경제윤리를 과거 기준으로 다룰 수는 없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후속연구가 따라 나와야 하는데 기독교 세

계관 분야에서 상당히 신자유주의적 노선의 입장을 '기독교적 경제학'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면 후속 연구도 제한되고, 일반 담론 시장에서도 기독교적 윤리나 기독교적 경제란 이름으로 논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다른 예로 북유럽의 복지 체제에 대한 후속논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북유럽은 루터의 배경이 큼니다. 이 부분을 사회가 세속화된 결과로 가능했던 복지로 볼 것인가, 기독교적 방식이 그 사회에 깊이 녹아든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기독교 세계관 영역에서도 인상 비평이나 즉흥적인 평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꼼꼼하게 규명하려는 시도가 세계관동역회 같은 조직에서 주요 아젠다로 다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밖에도 기독교적 정치, 기독교 경영, 법조윤리, 의료윤리, 통일, 평화, 경제, 복지, 대중문화 등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윤리의 프레임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짚어야겠습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미국의 보수주의적 이슈나 방식을 쫓아가는 양상도 종종 보이는데, 이것도 능사는 아니라 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리 시차가 크지도 않고, 이미 한국은 경쟁과 설득력의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봅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익한 케이스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스스로 지지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F. 웨퍼, 찰스 콜슨, 낸시 피어시로 이어지는 기독교세계관의 논의 흐름이 미국의 기독교 우파정치와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따라가는 것이 능사인지 따져보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동역회가 한국 개신교 내부 지형에서 건강성과 개혁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질문해야겠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세계관동역회의 조직 구성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굿은 소리하기 어려운 입장이 아닐지 싶습니다. 단체 내부적으로 윤리적 긴장을 느끼고 계실텐데,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여러 스캔들에 말려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개혁이라는 주제 앞에 세계관동역회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자리매김은 무엇일지 토론이 필요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몇 단체가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 그때 세계관동역회 실행위원장인 김태황 교수님이 오셔서 사회도 해주시고 짧은 발제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사한 시간이었

습니다. 학술적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약을 해주시는 부분이 고마웠고, 그래도 동역회에 학자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윤리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바로 반응해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의식 4.

지식 생태계와 기독교사회 구조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지식생태계의 형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 생태계를 ‘지식 생태계’, ‘교회 생태계’, ‘시민 생태계’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누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 생태계라고 봅니다.

종교개혁 역사는 르네상스 이후 지식 사회가 형성되었던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만약 르네상스에 있어 지식의 혁명이나 지식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도 굉장히 미미한 형태로 갔으리라 봅니다. 한국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제도를 바꾸고 과감한 여러 시도도 가능하겠지만, 교회 개혁의 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만드는 지식 생태계나 개혁에 대한 담론 자체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회론과 교회론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것을 신학교가 해줄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대체로 신학교는 교단 신학 안에서 목회자 양성이란 과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서 요구되는 공적인 주제와 질문들이 제기되어도 신학교 안에서 굳이 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죠. 한국사회나 성도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공공신학자(public theologian, pastor)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런 분들의 등장이 구조적으로 상당

한국사회나 성도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공공신학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거점이 교회 바깥, 교계 밖의
지식 생태계가 감당해야 한다 싶은데,
세계관동역회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히 요원하기에, 저는 이 거점을 교회 바깥, 교계 바깥의 지식 생태계가 감당해야 한다 싶고요, 세계관동역회 같은 곳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싶은데 세계관동역회에서는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계 중심’의 구조에서 ‘기독교 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고, 목사님이 대표하는 ‘교회 중심 사회(church society)’에서 기독교인 가운데서 각 영역에 주요한 기독교 전문가들이 자기분야에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사안을 보고 발언하고 그것이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사회 구조(Christian society)’로의 변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목사에 의한 과잉 대표성이 제한되거나 해체되고, 개신교 전반에 평신도 전문가 그룹들이 전면으로 포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쓴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만인제사장 사상을 전면으로 제기하는데, 교회개혁은 성직자가 아니라 평

신도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만인 제사장 사상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기독교 귀족들이 교회개혁에 전면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는 한국에서도 아마 유사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개혁이나 혹은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할 역할에서 전면으로 등장하는 일이 필요하고, 과잉된 목회자 대표성을 제한하거나 해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주년이라고 독일여행을 많이들 계획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봅니다. 여행 잘하고 잘 배우는 것 이상으로 개신교의 얼굴을 좀 바꾸고, 한국 개신교의 대표성을 늘 등장하는 얼굴이 아닌, 평신도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할지는 여러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향후 1~2년 안에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